

환난 한가운데서 누리는 화평

새부대교회 · 주일 설교 「이신칭의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환난조차 저주가 아니라 연단으로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 위에 소망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그 은혜를 우리의 구체적인 하루 속에서 어떻게 누릴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번 주 불독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1 한 걸음 더 — 오늘 겪는 일들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

본문 롬 5:3-5

우리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더 자주 낙심합니다. 출근길에 꼬이는 일, 사람 사이의 오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적인 계획들.... 이런 작은 환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까지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환난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는 연단'입니다(롬 5:3-4).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 하루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대로 마음을 닫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로 제 안의 교만과 자기연민을 보게 하시네요. 저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달라질 때 열매도 달라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롬 5: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롬 5:5).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작은 실패와 흔들림 때문에 사랑을 거두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부딪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한 번 멈추어 보십시오. "이 일 안에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배워야 할 인내와 사랑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고 기도할 때, 환난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소망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 웹툰 — 인사 통보 전달 밤

1컷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 출근 시간대. 주인공 지민이 손잡이를 잡고 서서 스마트폰 알림을 보는 모습. 얼굴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불안이 비친다. 주변은 붐비는 직장인들. 전신이 보이는 세로 구도.

지민(속으로): 구조조정 공지... 나도 대상이면 어떡하지.

2컷

오전 회의실,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고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 지민은 옆자리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다. 반신이 보이는 구도.

팀장: 이번 구조조정, 우리 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민(속으로): 주일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도무지 평안이 안 된다.

3컷

점심시간 뒤 회사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지민의 옆모습. 한 손에는 종이컵 커피,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카톡 메시지를 보고 있다. 하늘은 흐릿하지만 약간의 햇빛이 비친다. 상반신 클로즈업.

카톡 내용(지민이 읽는 말): "이번 주도,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믿자."

지민(속으로): 그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했지.... 그럼 이 두려움도 혼자가 아니겠네.

4컷

퇴근 후, 집 작은 책상 앞. 불 켜진 방, 책상 위에는 펼쳐진 성경과 노트. 지민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다.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지만, 약간의 평안이 비친다. 상반신 중심 구도.

지민: 주님, 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 사랑을 믿고 싶어요. 이 상황도 제 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길게요.

5컷

다음 날 오후, 인사담당자와 마주 보고 앉은 면담실. 지민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 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차분하다. 인사담당자는 서류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반신 위주 구도.

인사담당자: 팀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힘들겠지만 잘 부탁해요.

지민: 네...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6컷

늦은 밤, 지민의 방. 불이 꺼진 방 안, 창밖 도시의 불빛이 비친다. 지민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창가 쪽을 향해 손을 올려 기도하는 뒷모습. 세로 긴 뒷모습 구도.

지민: 주님, 결과가 어떻든 저를 붙들어 주세요. 환난 중에도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세요.

3 결단송 —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 앞에 나와

내가 선 자리가 은혜임을 기억해

[1절]

행위로는 설 수 없던 나의 지난 날

죄 아래에 갇혀 두려움에 숨었네

그런 나를 부르시며 얼굴 비추사
복과 은혜, 평강으로 채우시네

[후렴 앞]

환난의 거센 파도 앞에 설 때
여전히 묻고 싶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보여 주신
그 자리, 그 나무를 바라보네

[후렴]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폭풍 속에도 난 주께 속했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
주와 화평 누리는 이 자리에서

[2절]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던 맘
사람 말에 흔들리고 낙심했지만
성령께서 내 가슴에 부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후렴 앞]

연약하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원수 되었던 나를 화목케 한
그 피가 오늘도 날 붙드네

[후렴]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폭풍 속에도 난 주께 속했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
주와 화평 누리는 이 자리에서

[브릿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

[후렴]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마지막 날까지 포기 않으리
진노 대신 화평을 주신 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노래하리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리

고요한 밤에도, 눈물의 새벽에도
내 소망은 하나, 예수 십자가